



무주경찰서, '교통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는 13일 무주IC에서 경찰 및 모범 운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관련, 가시적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찰이 항상 도로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요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운전자 대상 홍보용 줄임값(약물운전 단속 강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을 함께 배부함으로써 필수적 교통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무주=손승기 기자



고창경찰서, 교통안전의 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13일 자유중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의 날을 맞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유관기관, 협력단체와 함께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준수, 안전운행, 안전보행 등을 홍보하고자 실시했다.

군민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용품과 약물운전 및 교차로 우회전 안내 전단지 배부하여 홍보하였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RE-바이벌 운영 홍보 및 신고 방법 등 안내를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과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죽항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 맞춘다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남원사회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조기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죽항동 서비스 대상자는 일반이용자 55명, 중점이용자 7명 등으로, 생활지원사들이 안전 확인과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추진하고, 생활지원사가 복지 위기 징후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청년플, 청년 고용 촉진 위해 '맞손'

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군산청년도전지원사업단과 청년 취업 지원 및 장기 재직 기반 강화

군산시 청년플(청년센터·창업센터)은 13일 지역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주)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군산청년도전지원사업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청년 고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 재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플은 (주)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업 발굴과 청년 고용 매칭, 취업 청년의 장기 재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청년도전지원사업단과는 구직단념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해 청년들의 공간과 프로그램 활용한 사회참여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플 또는 대표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온맘 돌봄전문가 과정' 운영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620-5280~5)가 지역 내 중장년 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 개강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중장년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온맘 돌봄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기획된 올해의 마지막 직업교육훈련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지역 내 노인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장년 여성이 지닌 풍부한 생활 경험과 공감 능력을 전문 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노인복지 및 통합돌봄의 이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실무 △치매 예방 및 인지 프로그램 △돌봄 전문가의 직업 윤리와 소통 역량 강화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이오진흥원, 취약계층 어르신에 따뜻한 관심과 나눔 실천

전북은행 서곡지점과 엠바오 노인복지센터에 쌀 29포대 전달...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 기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바이오진흥원은 13일 엠바오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진흥원 임직원과 전북은행 지역 상생부 서곡지점이 함께 참여했으며, 총 100만 원 상당의 10kg 쌀 29포대를 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시



설과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에게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남원의료원, 운봉읍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13일, 운봉읍에서 지역 고령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남원의료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숙련된 의료진이 투입되어 고령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진료 및 건강 상담, 영양제 투약, 물리치료 등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군산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저녁 수송동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변화가 및 생활 주변 지역의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음주·흡연·기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합동점검반은 업소별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및 고용·출입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업주들에게는 담배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